

C 기술표준가족



기술표준 발간을 축하하며

한국표준협회 산업표준연구원장 강성표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었다고 연일 매스컴이 소란스러웠던 기억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2002년 壬午年이다. 참으로 빠른 시간이고, 그사이 세상도 많이 변한 것 같다. 이러한 세계 속에서 자신의 몫을 찾고 입지를 공고히 하는 일에는 부단한 노력과 아울러 치밀한 전략과 실천들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난 몇 년간 기술 개발을 위한 R&D에 많은 투자를 하였다. 정부와 민간은 1998년을 기준으로 각각 3,302억원과 2,593억원으로 총 5,895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투자를 하여왔다. 이는 비단 우리의 노력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기술개발경쟁에 따른 결과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많은 신기술을 생산하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세계는 이미 무한경쟁의 국제화시대에 접어들었으며, 개발된 기술은 국제화란 가공과정을 밟고 새로운 상품으로 거듭나야만 한다. 이는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이룬 국가가 단연 관련 분야를 석권하게 되며, 우월한 입지를 선점하게 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것은 기술 R&D 경쟁시대에서 기술표준화 경쟁시대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즉, 표준은 새로운 무기이며, 새로운 이윤 창출의 출발점이 된 것이다. 과거 새로운 기술을 소유한 국가는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부유한 삶을 영위한 것을 역사를 통하여 알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기술의 국제표준화란 신무기를 활용하여 소리 없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부”를 창조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말하자면, 지금은 기술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신시대이다. 이를 위한 표준화 작업은 기하 기공할 잠재력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기술표준』의 발간은 매우 의미가 있으며, 그 어깨가 무겁다고 생각된다. 선도자의 역할은 미래의 변화를 꾀하고, 새로운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가져오는 것이다. 우리가 기대하는 새로운 시대는 과학기술시대를 기반으로 산출된 우리 기술이 표준화를 통하여 국제경쟁력뿐만 아니라, 관련분야를 선점함으로써, 우리의 기술영토를 확장하는 것이다. 마치 대륙에 철길을 놓듯이 말이다. 본 『기술표준』 지의 발간에 즈음하여, 국제경쟁사회에서 기술의 표준화작업은 기술 영토의 확장을 위한 당위의 사업임을 높이 평가하면서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다.